발행처 재단법인 사랑글로벌아카데미 **발행인** 오정현 **발행일** 주후 2026년 11월 www.saga121.com



saga STORY

2026 November **Vol.66**

생도이야기 제자훈련아카데미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참된 쉼

SaGA 소식
복음통일아카데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
레거시아카데미 다음 세대에 남길 믿음의 유산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Our SaGA 예배아카데미
놀라운 주님의 역사 6년
기도제목

How Together SaGA 물댄동산 후원안내

saga 사랑글로벌아카데미 SaRang Global Academy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참된 쉼

쉼 없이 달려온 순장사역과 전도사역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에 대한 깊은 갈증과 영적 성숙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즈음 SaGA 제자훈련아카데미 목양사과정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목양사과정은 때로는 저에게 쉼의 시간입니다. 남편과 두 딸을 살피고, 연로하신 친정부모님과 한국에 방문하신 시어머님을 섬기며, 다락방과 전도사역으로 주중을 보내고 주일예배를 드린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다시 채비를 하고 목양사과정 수업으로 향하려면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의실에 들어가 과정을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온갖 무거운 것들이 어느새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기 원하는 분들과 함께하기에 서로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깊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게 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깊이 새겨진 복음의 신비를 입체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게 하실 때면 마음에 감격이 일렁입니다. 어느덧 푸른 초장에 누운 양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피곤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과 몸이 평안해지며 충만해지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신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목회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신도들을 깨워 동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심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목양사과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아카데미
김지연 생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

School of Gospel Reunification



복음통일아카데미
정세기 생도

북한을 떠올리면 그 땅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어 푸른 나무로 가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나무를 다루고 가꾸는 일이 나의 일상이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고 복음통일아카데미를 지원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자칫 잊혀 가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통일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당장 내 삶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강의를 통해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을 접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구조인 '배제'를 거절하되, 상처를 준 죄인과 타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 이것이 '포용'이다."

또한 2014년 오준 유엔대사님의 강의 중 즉흥연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복음통일을 향한 비전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달라고 기도드리며, 우리 5기 생도팀은 단둥-압록강-백두산-용정-도문으로 이어지는 약 1,300킬로미터의 북중접경탐방길을 시작했습니다. 단둥에서 압록강 철교 너머 우리의 산하 신의주를 바라보며 한반도와 민족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다 보니 2,000여 미터 수목한계선에서 볼 수 있는 '사스래나무'를 만났습니다. 긴 겨울과 매서운 바람, 많은 눈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기에 하늘로 곧게 뻗지 못하고 비스듬히 버티며, 희고 거친 줄기의 모습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갈 힘을 만들어 내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어쩌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떠올렸습니다. 압록강 건너로 보이는 일상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우리 핏줄의 숨결, 간간이 보이는 옥수수밭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핏줄이 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동포들의 어려움을,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필요성을 말입니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I know와 I do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지식보다 **알고 있는 것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 작은 행동으로 바뀌는 데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는 데서 통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 다짐할 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다음 세대에 남길 믿음의 유산



레거시아카데미
이성호 생도

40여 년 쉼 없이 달려온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레거시아카데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Legacy)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School of Legacy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자서전을 쓰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자녀 세대의 마음 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영적 파종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이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심은 믿음의 씨앗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School of Legacy 지혜로운 삶을 향하여

Aging(나이 듦)이 Saging(지혜로워짐)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가르침은 인생 후반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나이 듦은 단순히 젊음을 잃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고 사랑과 지혜 안에서 성숙해 가는 시간입니다. 은퇴 역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세대에 남길 믿음의 유산

이제는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높이 올라가기보다 낮은 곳을 살피며, 제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듯 남은 날들도 감사와 섬김으로 채워 가며, 제게 허락된 남은 생애는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는 삶이 되겠다는 각오를 해 봅니다.

School of Legacy 믿음의 레거시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 중 특히 제게 깊은 도전을 준 인물은 갈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저 역시 인생 후반전에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한계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다음 세대가 따라 걸을 수 있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제가 남긴 작은 믿음의 발자국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School of Legacy 청지기의 삶과 미래 사역을 결심하며

재정에 관한 배움은 소유의 크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사용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물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맡겨진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기꺼이 나누며, 사랑의 흔적과 나눔의 열매를 남기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레거시아카데미에서 배운 은혜가 마음속 다짐에 머물지 않도록 미래 사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chool of Legacy 배움을 마치며

레거시아카데미의 배움을 마무리하며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이며, 앞으로의 날들도 은혜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만이 아니라 기도의 흔적을, 성공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배움은 끝났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섬기며, 사랑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삶으로 기록하고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시대,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온전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가 역동적인 영적 리더로서 다음세대의 비전을 심고 미래 사역의 새 장을 열어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입학원서 접수는 홈페이지 참조 saga https://www.saga121.com/admission-guide

모집과정

모집 아카데미	모집인원	모집요강 더 알아보기
예배	40명	예배아카데미 모집요강
제자훈련	50명	제자훈련아카데미 모집요강
일터선교&글로벌네트워크	220명 (거점캠퍼스 120명 포함)	일터선교&글로벌네트워크아카데미 모집요강
복음통일	50명	복음통일아카데미 모집요강
레거시	50명	레거시아카데미 모집요강

전형일정

구분	일정	방법	비고
입학원서 접수(1차)	2026.10.01(목)~2026.11.30(월)	홈페이지	입학전형료 면제
입학원서 접수(2차)	2026.12.01(화)~2026.12.3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7.01.04(월)	개별공지	-
면접	2027.01.09(토)		장소 및 시간 아카데미별 상이
최종 합격자 발표	2027.01.13(수)		-
합격자 등록기간	2027.01.18(월)~2027.01.30(토)	지정계좌로 납부	-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아카데미	일시	대상	장소
예배	2026.12.08(화) 19:30	교회 지휘자, 반주자, 찬양 인도자, 음향 및 영상 사역 봉사자 중에 전문적인 사역자로 헌신하고 싶은 분	강남캠퍼스 신관 402호
일터선교&글로벌네트워크	2026.12.06(일) 16:30	성경적 크리스천 리더로 세상을 번혁하기 원하는 기업가, 직장인, 자영업자 및 크리스천 청년	사랑의교회 북측 2층 언약채플
복음통일	2026.12.12(토) 11:00	북한에 관심이 있고 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분, 전문인, 사역자	사랑의교회 남측 S702호
레거시	2026.11.28(토) 10:00	믿음의 세대계승을 준비하는 분, 인생 중,후반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Finishing Well'하고 싶은 분	강남캠퍼스 신관 301호

입학설명회
[신청하기]

신청마감
각 아카데미
입학설명회
1일 전까지

6년 놀라운 주님의 역사



예배아카데미
조성환 학장

기적적으로 시작된 SaGA의 사역이 어느덧 6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5개의 아카데미 가운데 하나인 예배아카데미 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첫해, 코로나 시절에 시작된 예배아카데미 1기를 돌아보면 지금도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1기 생도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6년의 세월이 흐르며 예배아카데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동문회가 구성되었고, 미국 시카고의 노던 세미나리와의 학위 연계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0명이 넘는 생도들이 노던 세미나리에 진학하여 학위 연계 과정을 밟았으며, 실제로 예배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국내외 여러 사역 현장에서 활발히 섬기고 있는 동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10·27 한국교회 연합집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인 역사적인 집회에서 예배아카데미 출신 동문들은 찬양팀과 찬양대로 섬기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현장에서 여러 동문들이 찬양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섬겼고, 1,000명의 한국교회 연합찬양대가 「Way Maker(길 만드시는 주)」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6년 놀라운 주님의 역사

찬양이 시작될 즈음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값비싼 악기를 가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성도들이 자신이 쓰기 위해 준비해 온 우산을 펼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악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이 시작되자 비가 멈추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는 듯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예배아카데미 학장으로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큰 감사와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동문들의 근황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준 前 예배아카미데 부학장님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오준석 목사님은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또한 Paul Yoon 동문은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 위치한 Covenant CRC St. Catharines 교회에서 전임 예배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출신인 Paul Yoon 동문은 오랫동안 전임 예배 사역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아카데미 과정을 감당했고, 노던 세미나리를 졸업한 후 마침내 사역지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학장으로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또 한오석 동문은 연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북 성광교회 유치부 담당 교역자로 임명되어 사역하게 되었으며, 프로 무용가인 이진영 동문은 최근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모든 동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사랑글로벌아카데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국인 생도들이 예배아카데미에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Paul Yoon(4기), 일본 출신 사야카(5기), 대만 출신 왕유균(6기), 중국 출신 김군필(6기) 등 다양한 국적의 생도들이 함께 배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새로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7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배아카데미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SARANG GLOBAL ACADEMY
saga
School of Worship

예배아카데미 기도제목

1. 7기 생도 모집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명 정원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 국내외에서 사역하는 동문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예배아카데미에 주신 사명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3. 7주년을 맞이하는 예배아카데미 위에 영적·학문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발행인 오정현 디자인 백문희

How Together

SaGA 물댄동산 후원안내

■ 자유후원 ■

연간 10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후원

하나은행 : 189-910047-54104
(예금주 : 재단법인사랑글로벌아카데미)

■ 정기후원 ■

월 1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

후원하기 를 클릭하신 후,
후원 내용을 입력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